

현실 직시 못하는 인간 그린 '웃픈 연극'

광주시립극단 '벚꽃동산' 공연
러시아 작가 안톤 체호프 작품
19C 몰락 귀족 통해 인간 성찰 그려
27~29일 빛고을 시민문화관



광주시립극단이 무대에 올리는 '벚꽃동산'.

〈광주시립극단 제공〉

'갈매기', '세자매', '바나 아저씨', '벚꽃동산'. 러시아 작가 안톤 체호프의 희곡은 국내 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꾸준히 상연되는 인기작이다. 광주시립극단이 '연극적 환상', '레옹스와 레나'에 이은 고전명작 시리즈로 '벚꽃동산'을 무대에 올린다. 27일(오후 7시30분), 28일(오후 3시·오후 7시30분), 29일(오후 3시) 빛고을 시민문화관. '벚꽃동산'은 19세기말 러시아를 배경으로 유일한 도피처인 벚꽃 동산을 잃어버릴 위기에 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다양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연극이다. 귀족으로 살았던 현실감 없는 여주인공 '라네프스카야'와 그 주변의 인물들이 새로운 시대를 맞으며 겪어내는 이야기를 그린다.

몰락 귀족 '라네프스카야'는 6년만에 빈털터리가 돼 고향으로 돌아오지만 가족의 지랑이였고, 수많은 추억이 담겨 있는 벚꽃동산은 재정 위기로 경매에 넘어가기 직전이다. 그녀 집안의 농노 자식이었던 로빠힌은 사업가로 성공, 그녀에게 별장 인대를 제안하지만 그 누구도 귀 기울여 듣지 않는 가운데 벚꽃동산이 경매에 넘어가는 날이 다가온다. '갈매기', '육방이란 이름의 전차', '바보 리어' 등의 작품을 무대에 올렸던 최영환 동국대 영상대학원 공연예술학과 교수는 광주시립극단의 '벚꽃동산'을 어떻게 풀어냈을까.

"이 연극을 '소극(笑劇)적인 요소가 다분한 희극'이라 말한 체호프의 의도를 최대한 반영하고 저의 해석을 더해 '희비극(tragic-comedy)'으로 연출했습니다. 주인공들이 처한 상황은 너무도 부조리하고 뻘속까지 연민이 느껴지지만 각 인물의 행동과 모습에서는 웃음이 절로 납니다. 그래서 이번 작품은 '웃픈(bittersweet) 연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 연출이 각색도 맡은 이번 작품은 화술 위주의 정극 스타일에서 벗어나 다양한 움직임과 춤, 마술 등 시청각적인 요소를 가미, 역동적으로 구성한 점이 특징이다.

또 사실적인 무대 대신 은유와 함축, 상징이 가득한 '시적(詩的)' 무대를 추구했다.

출연진들은 다양한 훈련과 연습을 통해 배우들 간에 진심으로 교감하고 반응하는 법을 함께 익히며 작품에 임했다. 관객을 극에 몰입시키고, 관객들에게 감동을 선사하기 위해서는 배우들간의 호흡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100년 전 러시아에서 공연됐던 작품이 2023년 한국에서 여전히 유효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번 작품은 자신의 삶의 모습에 대한 객관적 성찰 불능, 소통 불능, 꿈꾸지 못하는 자들의 군상을 보여줍니다.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개척하지 못하는 극 중 인물들의 부조리함과 어리석음은 생각거리를 던져주죠. 진정한 삶을 살지 못하는 우스꽝스러움과 비애는 한 세

기가 지난 지금 우리의 모습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작품을 통해 자신의 삶의 모습을 냉철하고 객관적으로 성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이번 작품에는 오디션에 거쳐 선발된 한준공, 김종진, 고난영, 양선영, 윤 석, 이영환, 유현지, 김민재, 양동진, 정유정, 황성인, 조종일, 이승민이 출연한다.

주인공 라네프스카야는 지역의 베테랑 배우 유지영이 맡았으며 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해온 나상문 로빠힌역으로 출연한다.

15년전 광주배우협회 공연에서 같은 인물을 연기했던 유 씨는 "제가 주인공이라기보다는, 삶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는 15명 출연 배우 모두가 주인공인 작품"이라며 "꿈 속에서만 사는 자, 꿈조차 꾸지 못하는 사람들, 꿈을 이루려하는 자 등 작품에 등장하는 다양한 인물들과 호흡을 맞추려 노력했다"고 말했다. 전석 1만원. 문의 062-415-1820.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박진현의 문화카페

엇그제 중앙지를 펼쳐든 순간 '대문짝만하게 실린 사진이 눈에 들어왔다. '책읽는 서울광장'이라는 타이틀이 붙은 사진은 도심 한복판에서 독서삼매경에 빠진 시민들의 모습을 담고 있었다. 올해로 28회째인 '세계 책의 날' (23일)을 기념해 서울시가 기획한 행사였다.

이날 드넓은 잔디광장에 돛자리를 깔고 앉거나 이동식 소파에 기대어 책을 읽는 이들의 모습은 한복색의 풍경화였다. 특히 한낮의 햇빛을 피하기 위해 펼친 형형색색의 파라솔은 미술관에 전시된 설치작품을 보는 듯 했다.

이번 행사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이유는 국내 최초의 매머드 '야외도서관'이었기 때문이

나눠주는 짝꿍 행사를 개최했고, 광주 동구는 '책읽는 동구'를 내걸고 독서전문가, 주민, 사서 등을 대상으로 '올해의 책' 후보 도서를 선정하기도 했다.

문득, '광주의 책읽기'가 궁금해진다. 책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세상을 보는 눈이 넓어지고 창의력이 커져 건강한 공동체를 이끌어 가는 원동력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근래 국내외 도시들이 경쟁적으로 '한 도시 한 책읽기' 등 다양한 독서 인프라를 통해 '북시티'를 지향하는 건 그런 이유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광주는 문화도시라는 타이틀이 무색할 만큼 독서 생태계가 빈약하다. 현

책읽는 풍경, 책읽는 광주

다. '책의 날'을 기념해 서울시가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오는 11월(매주 일요일)까지 광화문광장과 서울광장을 '책읽는 광장'으로 조성하기로 한 것이다. 문화도시의 품격은 곧 시민들의 책읽기에서 나온다는 취지에서다.

사실, '책의 날'은 1995년 유네스코가 독서와 출판을 장려하기 위해 제정한 기념일이다. 4월 23일로 정한 이유는 1616년 스페인작가 세르반테스와 영국의 셰익스피어 사망일이 겹친 데서 착안했다. 일각에선, 사랑하는 사람이 책을 사면 꽃을 선물하는 스페인 카탈루냐 지방의 '세인트 조지의 날(4월23일) 전통에 따른 것'이라는 설도 있다. 이유야 어쨌든, 발당 숲으로 둘러싸인 삭막한 도심에 함께 모여 잠시 스마트폰 대신 책을 읽는 모습은 그 자체만으로 신선한 충격이다.

마침 광주에서도 책의 날을 앞두고 다양한 이벤트가 열렸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세계와 문화를 잇는 책의 가치를 일깨우기 위해 지난 20일 ACC도서관을 찾은 시민들에게 책과 장미를

재 지역에는 27곳의 공공도서관이 있지만 주로 열람실에 치중돼 있어 요즘 트렌드인 복합문화 공간으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광주 곳곳에 동자를 틔 '작은 도서관' 역시 400여 개가 넘지만 내실 있는 운영이 이뤄지지 않아 '개점휴업'인 곳이 많다. 특히 2019년 광주시가 의욕적으로 '책읽는 도시'를 목표로 신설한 문화도시정책관 산하 '독서인문학진흥팀'은 이렇다할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30여 년을 책의 공간과 사람들의 이야기를 카메라에 담은 김연호 한길사 대표는 최근 펴낸 '지혜의 숲으로'에서 새삼 책읽는 도시의 가치를 역설했다. "한 도시에는 고층건물도 있어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미술관과 극장, 도서관, 서점이다. 따뜻한 등불 아래 책을 읽고 있는 사람들의 그림자, 이것이 한 도시의 문화와 정신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문화도시이자 인문도시를 지향하는 광주가 급속히 나아가야 할 것이다. <문화·여행칼럼, 선임기자>

세븐틴, K팝 신기록

'FML' 발매 첫날 400만장 판매

그룹 세븐틴(사진)이 발표한 새 미니앨범 'FML'이 발매 당일 400만장 가까이 팔리거나 K팝 첫 주 판매량 신기록을 수립했다.

25일 가요계에 따르면 전날 발매된 'FML'은 한터차트 기준으로 하루 동안 399만8300여 장이 팔려나갔다.

이는 한터차트 기준 K팝 역사상 하루 판매량으로 최고 기록일뿐만 아니라 팬덤 규모 및 인기의 척도로 여겨지는 첫 주 판매량으로도 역대 최대치다.

기준 첫 주 판매량 1위는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지난 2020년 2월 'MAP OF THE SOUL : 7'로 기록한 337만8600여 장



이었다. 이로써 하이브는 K팝 첫 주 판매량 역대 기록에서 1위 세븐틴을 비롯해 2~4위 방탄소년단과 5위 투모로우바이투게더에 이르기까지 톱 5를 모두 석권하는 기록을 세웠다.

'FML'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부정적인 생각에 매몰되지 말고 이겨 내자는 긍정과 응원의 메시지를 담은 앨범이다. 더블 타이틀곡 '손오공'·'픽 마이 라이프'를 포함해 총 6곡이 담겼다. /연합뉴스

이제훈 '수사반장'서 청년 최불암 연기

MBC 드라마 하반기 촬영

배우 이제훈이 범죄 수사 드라마 '수사반장'의 프리퀄 드라마인 '수사반장 1963'(가제)에 출연한다.

MBC는 올해 하반기 촬영을 시작할 '수사반장 1963'의 주연으로 이제훈을 캐스팅했다고 24일 밝혔다.

'수사반장 1963'은 배우 최불암 주연의 '수사반장'보다 10년 앞선 1960년대를 배경으로 청년 박영환이 반장이 되기 전 이야기를 다룬다.

'수사반장'은 1971~1989년 총 880회 방송되며 최고 시청률 70%를 넘은 범죄 수사물의 효시로 꼽히는 작품이다.



이제훈은 박영환 역할을 맡아 박 반장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연기하게 된다. 이제훈은 드라마 tvN '시그널', SBS '모범택시' 시리즈, 넷플릭스 '무브투헤븐: 나는 유품정리사입니다'와 영화 '파수꾼', '건축학개론', '박열', '아이 캔 스피크' 등에 출연했다.

'수사반장 1963'의 연출은 영화 '공조', '왕겉'의 김성훈 감독이 맡았고, 신에 김영진 작가가 극본을 썼다. /연합뉴스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